

## 노후자금, 안전자산에만 투자하면 진짜 안전할까?

글 / 권기동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

김민준(45) 씨는 요즘 퇴직연금 때문에 고민이다. 지난달 회사에서 실시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에서 입사 동기와 퇴직급여를 비교했더니 적립금이 무려 500만 원이나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김 씨가 다니는 회사는 2007년에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퇴직급여를 운용할 금융상품을 고르고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제도다. 당시 김 씨는 정기예금을 선택했고, 입사 동기는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를 선택했다. 금융기관에서 6%가 넘는 정기예금 금리를 제시했는데 그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기 때문이다. 이후 정기예금 금리는 3% 초반까지 곤두박질쳤지만 김 씨는 줄곧 정기예금을 고수해왔다. 수익률 차이가 나뉘어 퇴직급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냐고 안이하게 생각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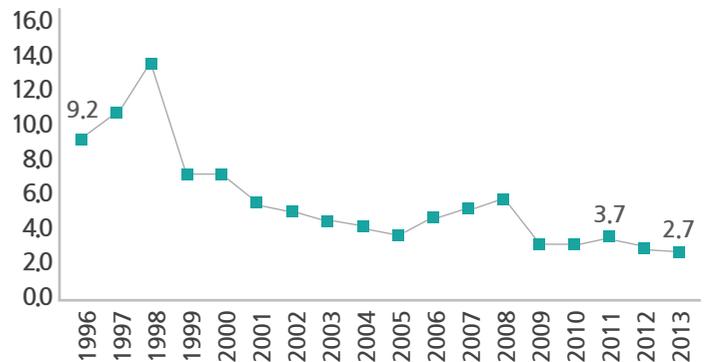
### 노후자금을 안전자산에 투자하면 진짜 안전할까?

사람들은 노후자금을 예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면 큰 고민 없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노후자금을 안전자산에만 투자하면 진짜 안전할까? 물론 과거에는 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그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상황이 다르다.

은퇴자가 자신이 가진 노후자금을 전부 국채에 투자하고, 거기서 받는 이자로 노후생활을 보낸다고 가정해보자. 모든 노후자금을 안전자산인 국채에 투자한 은퇴자는 과연 안전할까? 그렇지 않다. 물가가 오르면 고정금리로 지급받는 이자와 투자 원금의 실질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또한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이전에 낮은 금리로 발행된 국채의 수요가 떨어져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므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의 투자원금은 손해를 보게 된다.

정기예금도 마찬가지다. 예금 금리가 물가상승률을 커버하지 못하면 세월이 흘러갈수록 은퇴자금의 가치는 줄어든다. 지금처럼 예금 금리가 물가상승률을 겨우 따라가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커진다. 이처럼 노후자금을 모두 안전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그러므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

<표1> 정기예금 금리 추이



### 투자 성과의 9할은 자산 배분이 좌우한다

김민준 씨의 사례가 바로 이런 위험에 빠진 경우이다. 정기예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면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정기예금 금리가 떨어지자 고민에 빠진 것이다. 그래서 김 씨는 요즘같이 금리가 낮을 때 퇴직연금을 정기예금 같은 안전자산에 그대로 뒀던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막상 펀드로 갈아타려고 하니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경우 연금자산을 특정 금융상품에 집중해 투자하지 말고 다양한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면 된다. 포트폴리오 이론의 창시자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헤리 마코위츠도 자신의 퇴직계좌를 운용할 때 주식과 채권에 반반씩 나누어 투자했다고 한다. 주가가 상승할 때 참여하지 못하거나 주가가 하락할 때 빠져나오지 못해 생길 수 있는 후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실제 연금과 같은 장기투자에서 자산 배분이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미국 82개 대형 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한 BHB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운용된 투자자산의 운용 실적은 시장 예측이나 종목 선택에는 별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자산 배분에 의한 부분이 9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금을 전부 통합해 배분을 조정한다

자산 배분을 할 때는 퇴직연금 따로 개인연금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연금자산을 전부 통합해 배분 비율을 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연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각각 어떤 상품에 얼마만큼 투자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금융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된다. 그런 다음 전체 연금자산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얼마나 투자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다음으로 이 같은 자산 배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분 비율을 변경하면 된다. 비율 조정에 앞서 각 연금상품이 가진 제약사항부터 살펴보자. 우선 DC형 퇴직연금은 주식 등 위험자산에 최대 40%밖에 투자할 수 없다. 연금저축은 운용하는 금융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연금저축 보험은 주식에 투자할 수 없지만 연금저축 펀드는 주식 투자에 제약이 없다. 변액연금은 보험회사와 상품별로 차이가 난다. <표 2>를 보면 김민준 씨가 퇴직 연금을 정기예금에서 펀드로 변경하고, 연금저축은 보험에서 펀드로 전환해 전체 연금자산 내 위험자산 배분비율을 10%에서 50%로 끌어올린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은 한번 했다고 끝나는 일은 아니다. 주가의 등락에 따라 자산 배분 비율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자산 배분 비율이 처음 계획했던 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다.

<표2> 김민준 씨의 연금 자산 배분 조정

연금 종류	적립금	투자상품	변경 전		투자상품	변경 후	
			안전자산	위험자산		안전자산	위험자산
퇴직연금	4000만 원	정기예금	4000만 원	-	혼합형 펀드	2400만 원	1600만 원
변액연금	3000만 원	혼합형 펀드	2000만 원	1000만 원	혼합형 펀드	2000만 원	1000만 원
연금저축	1500만 원	보험	1500만 원	-	주식형 펀드	-	1500만 원
합계	8500만 원		7500만 원	1000만 원		4400만 원	4100만 원
비중	100%		88.2%	11.8%		51.8%	48.2%